수묵·퓨어링 빚어낸 추상 세계

이명희 개인전 '자연을 품다'
6월 18~25일 서울 갤러리 이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서예와 문인화로 작품세계를 펼쳐온 이명희 작가가 서예와 회화로 추상 언어의 세계를 선보인다. 이 작가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 '자연을 품다'를 개최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반야심경'을 비롯한 수묵 작품 11점과 퓨어링아트(Pouring art) 22점 등 총 3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퓨어링아트는 자연현상에서 내재되었던 감성들을 추상화한 그림으로, 캔버스에 물감을 붓고 흔들어 형상을 이끌어 내는 그림이다. 작품들은 오늘날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들을 자연의 섭리 속에 깃들어 있는 법칙들을 통해 삶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와 자연에 순응하는 원리들로 우리 인간 사회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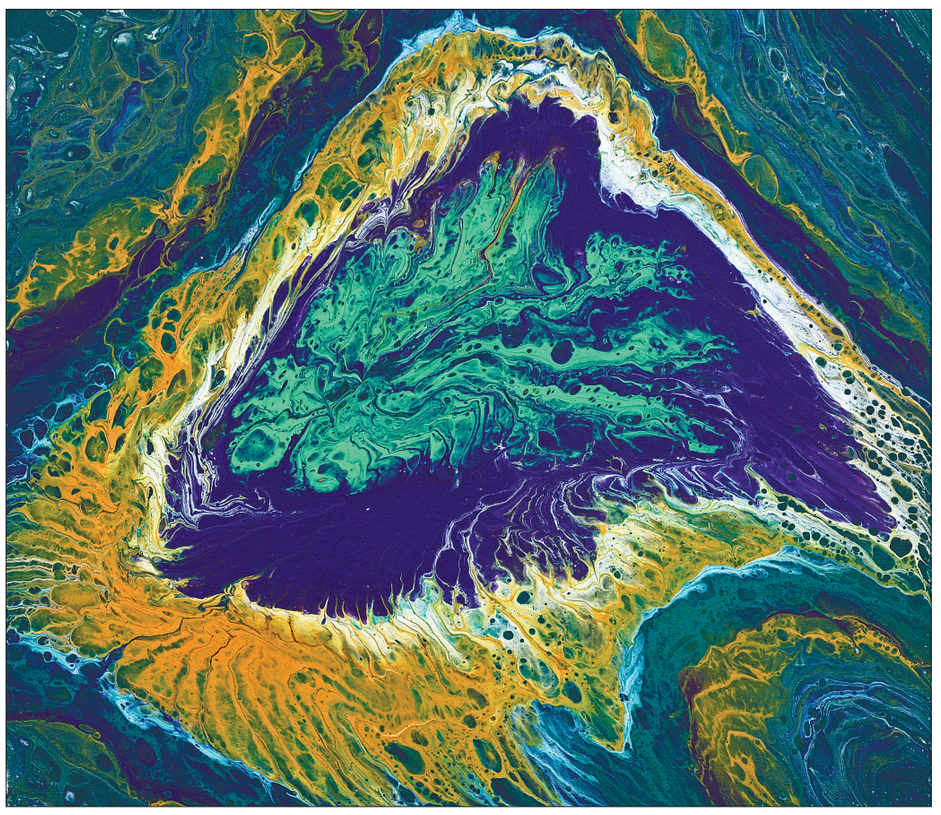
이 작가는 오랫동안 서예와 문인화, 캘리그래피 등 먹을 통한 작업을 해왔으나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퓨어링 아트 작업을 통해 화선지에 먹의 스밈이나 캔버스에 흩어진 물감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신항섭 미술평론가는 이명희 작가의 작품 세계를 "추상적인 언어는 작가의 내면세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실재하는 어떤 물상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마음 또는 의식의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세계이기에 그렇다. 이명희의 추상 언어는 물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물감을 이용하여 손으로 묘사할 수 없는 오묘한 이미지를 얻는 방식이다. 물과 기름 그리고 물감을 캔버스에 붓고 캔버스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원하는 이미지에 도달할 때 캔버스에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그의 작품은 남다른 감각과 공력이 필요하다. 치밀하고도 밀도가 높으며 아름답게 표현되는 작품은 탓할 데 없이 완성도가 높다.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순수 추상임에도 시각적인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 다양한 색채와 변화무쌍한 환상적 이미지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유발한다. 추상은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무색케 한다"고 평했다.

이 작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몇 가지 자신만의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연현상에 근접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현상과 현실적인 공간 밖의 시점에서 보는 자연의 이미지가 있다. 현실적인 상황은 파도나 물결 또는 갯벌과 같은 자연에 근접하여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또 하나는 높은 산이나 드론 및 항공촬영으로 내려다보이는 지상의 풍경이다. 해변으로 밀려드는 파도라든가, 분출하는 화산의 이미지 등이다.

또 하나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상상이나 사유에서 비롯된 이미지들이다. 현상계 너머에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세계란 사유에 근거하거나 상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추상이다. 어떤 특정의 이미지를 의식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표현행위를 통해 순수추상을 얻는 방식이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추상적인 이미지와 원색이 지어내는 화려한 발색이 미적인 쾌감을 제공한다.

다양한 그림 도구를 이용하는 다른 추상화와는 다른 조형 공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상과 마주하는 명민한 미적 감수성과 더불어 세련된 조형감각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가 함께 한다. 퓨어링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미술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 수리적이며 논리적인 성향의 사유체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이명희 作, 사유(思惟)의 강 52.8x4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이명희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및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미협)이며, 대한민국미술대전(한국미협) 서예와 문인화 심사위원을 지냈다. 대한민국 통일미술대전 문화관광부 장관상, 문화예술인상(한국예술인 총연합회) 등 다수 수상했으며, 이명희 書,畵,文 개인부스전(역삼문화센터), 국제아트페어전(중국 삼서성 미술관)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보물 속 디지털로 보다

'고려 보물의 속을 들여다보다' 展
6월 12일~9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


건칠보살좌상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를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6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상설전시관 3층 조각·공예관에서 '고려 보물의 속을 들여다보다' 전을 개최한다.


건칠보살좌상 컴퓨터 단층촬영(CT)

문화재 보존과학의 성과를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건칠보살좌상과 청자 어룡모양 주자(국보 제61호) 등의 고려시대 유물과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2018. 12. 4~2019. 3. 3)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보존과학의 성과와 역할을 전시유물의 상태점검, 과학적 조사, 보존처리 및 전시실 보존 환경측정 등의 영상 자료로 보여준다. 보존과학부를 통해 최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문화재 속의 정보들을 새롭게 밝혀나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번 전시는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려시대의 보물 중 청자 어룡모양 주자(국보 제61호), 청자 칠보무늬 향로(국보 제95호) 등 국보 4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중요 문화재의 비밀을 풀기 위하여 컴퓨터 단층촬영(CT) 이미지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새롭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된 청자는 청자실에서 직접 실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려시대 금동일면천수관음사의 보존처리 내용을 소개하고 은제 금도금 표주박모양 병의 자세한 관찰을 위하여 디지털 돋보기 등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첨단 과학 장비로 얻은 문화재의 디지털 정보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전달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의 디지털 원형 자료를 확보하여 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문화재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상설전시관은 연중 무료관람이며,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는 2020년 '빛으로 본 우리 문화재(가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재와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성과를 흥미롭게 보여줄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불교미술대전 공모

9월 17~19일 접수,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은 제30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개최를 위해 작품을 공모한다. 우리의 전통 민족문화인 한국불교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불교미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공모 부문은 회화·조각·공예 3개 부문이다.

회화부문은 세로 227cm×가로 181cm(150호) 이내이며, 조각부문은 높이 180cm×폭 180cm×두께 120cm 이내, 공예부문은 높이 180cm×폭 120cm×두께 120cm 이내이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이다. 응모 방법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공통 제출서류(응모원서, 출품자 경력서, 작품설명서 2부)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출품작과 함께 방문 접수한다. 기간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입구에 마련된다. 심사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알린다.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 최우상(2명)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원, 우수상(3명)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300만원, 장려상(6명)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 특선과 입선 수상자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된다. (02)2011-1779. 박재완 기자

'어린이 문화재그리기 대회'

6월 24일 오후 2~5시
국립전주박물관 전시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시실에서 '제29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소재 초등학생 어린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접수는 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소속 학교 담당교사를 통해 공문서로 접수한다. 개별접수는 전주박물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단체 및 개별 접수 모두 오는 6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행사 당일인 24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현장접수도 이루어지며,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우수상, 특선, 입선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시상식은 7월 10일 전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입상작은 7월 5일부터 28일까지 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내 시민갤러리에서 전시한다. (063)223-5653 박재완 기자



